

수출국 에너지효율기술규제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규제를 확대·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WTO에 따르면 '08년도에 미국, 중국, EU 등 24개 회원국에서 68건의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하였다. 이는 같은 해에 집계된 모든 기술규제 1,248건중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07년도의 1,016건중 25건(2.4%)에 비해 두 배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WTO/TBT 위원회의 에너지효율관련 통보문】

(단위 : 건)

연번	국가	통보문
1	중국	11
2	미국	10
3	태국	7
4	니카라과	7
5	멕시코	5
6	유럽연합	4
7	기타(18개국)	24
총계	24 개국	68 건

각국은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관련 제품에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는 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 및 IT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수출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08년 총 수출액 4,220억불중 가전 및 IT제품은 1,046억불(25%)이다.

한편,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측정 분야에서 관련 국제표준의 시장적합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전략품목인 평판 TV의 전력소모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세탁기·냉장고 등의 국제표준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럽방식 제품에 대해서만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대 국제표준화기관인 ISO 및 IEC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09.3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바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

에 국제표준들이 정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신 가전제품들을 생산하지 않는 EU, 미국 등 선진국가들이 국제표준화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첨단 가전제품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시급성을 애써 외면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여 우리 제품의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9.6월 개최된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회의시 기술표준원 대표단은 최근 도입되는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들에서 관련 국제표준들의 시장적합성이 취약하여 이들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하였다.

IEC의 SMB(표준관리이사회), ISO의 TMB(기술관리이사회)에서도 관련 기술위원회에 표준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10년부터 활동하게 될 ISO 이사회에서도 동 사안을 제기하고 ISO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기술규제관련 국제적 동향을 보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각국은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술규제가 사용되는 빈도가 증가하는 중이다. '09년 상반기 국가별 총 통보문 수는 작년 동기대비 33.6% 증가된 787건이다.

【최근 5년간의 TBT 통보건수】

(단위 : 건)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월
통보문 수	771	881	1016	1248	787

WTO/TBT 위원회에 제기되는 특정무역현안 (specific trade concern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도국에서 보호무역 성격의 TBT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이다. 개도국의 TBT 통보문 비중이 60%('08년)에서 80%('09.1~5)로 상승하였다.

【최근 WTO/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수】

(단위 : 건)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현안	31	28	37	45	59

WTO/TBT 위원회에 통보되는 각국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 사항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세계적 경제위기 타개에 수출 확대가 중요한 우리나라에게 기술규제의 확대·강화는 큰 부담이다.

'09년 수출목표 세계 9위(3,560억\$)가 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90%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기술장벽의 극복이 긴급하다. 개도국에서 기술규제가 확산되는 경향은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큰 애로가 제기되는 것이다.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로 대 개도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 수출 비중은 62.5%('06년) → 65.9%('07년) → 68.9%('08년) → 70.4%('09.6)이다.

